

로어단어조성에서 은유파생어에 대한 분석

유 명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대에 맞게 언어생활을 반영하는데서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사회정치제도와 경제관계, 문화도덕상대를 나타내는 표현을 잘 골라서 쓰는것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0페이지)

현시기 외국어학습에서는 언어생활의 문화성과 표현성을 높여주는 단어들의 의미와 그 조성원리를 체득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 된다.

이 글에서는 로어의 단어조성은유의 본질과 은유파생어들의 류형을 밝히고 은유파생어들의 파생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단어조성은유란 대상의 색깔, 형태, 운동, 기능 등의 류사성에 기초하여 출발어의 의미가 변화하여 새로운 의미단위인 파생어가 생겨나는 단어조성현상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은유파생어라고 부른다.

은유파생어들은 어휘적은유와 같이 형상적, 명명적, 표현적기능을 수행한다.

어휘적은유와 마찬가지로 은유파생어도 출발어의 의미와 각이한 련관관계를 가진다.

출발어들과의 의미적관계에 따라 로어은유파생어들을 여러가지 류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은유파생어를 외적은유파생어, 내적은유파생어, 련합적은유파생어, 표현적은유파생어의 네가지 류형으로 분류해볼수 있다.

외적은유파생어는 비교되는 대상, 특징, 행동의 외적류사성에 기초하여 조성된것들이다. 주로 접사단어조성소들이 단어조성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출발어와 같은 품사의 은유파생어가 만들어지거나, 다른 품사의 파생어가 만들어지거나에 따라 접사단어조성소는 은유파생어의 문법적표식으로 되거나 은유적의미의 조성자역할을 할수 있다.

례: змея(뱀)→змеистый(라선관), змея(뱀)→змеиться(구불거리다)

접사단어조성소에 의하여 단어조성은유의 파생방향을 규정할수 있다.

례: шея→перешеек, играть→выиграть

로어단어조성에서 외적류사성에 기초한 파생어는 극히 드물다. 특히 명사는 물체들의 외적류사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물체들을 명명해야 하므로 외적은유파생어에는 명사가 매우 적으며(красивая бабочка→галстук-бабочка) 그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조성에서만 드물게 진행된다.

어휘적은유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들이나 동사들의 외적류사성에 기초한 은유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은 동사적어휘은유가 각이한 대상들을 직접 비교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면(Корова мычит.소가 영각소리를 낸다. —Мой сосед по парте что-то мычит.내옆에 앉은 동무가 무엇인가 웅얼거린다.) 은유파생어는 단어의 형태부구조의 변화와 같은 현상에 기초하기때문이다.

내적은유파생어는 비교대상들의 숨겨진 내적특성을 대조한 결과에 생겨난것들이다. 여기에서 전의는 표면에 드러난 의미와 잠재적인 의미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내적은유는 비교에 의해서도 진행된다.

례: карман(옷에 단 주머니) →прикарманить(자기 주머니에 넣듯이 가지다)

단어조성적의미는 《자체의》라는 잠재적 의미와 접두사 при-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에 토대하고있다. 여기에서 《자체에 향해지는 자체의 리익에 맞는 동작》의 의미를 동사에 부여하는 접두사 при-의 의미가 큰 작용을 한다.(привлечь, приманить, присвоить, припрятать)

이런 류형에 관계되는 내적은유파생어들

로서는 **сердцевина**(심지), **подножие**(발침돌), **барственный**(랑반티나는), **школьнический**(학생의), **столбенеть**(말뚝처럼 서다), **стекленеть**(유리비슷해지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내적은유파생어는 외적은유파생어보다 모든 품사들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련합적은유파생어는 비교되는 대상들의 잠재적의미나 련합적련계에 토대하여 만들어진것들이다. 이런 류형의 은유파생어들에서는 출발어와의 정확한 의미적련관관계를 설정하기 힘든 때가 많다. 그것은 파생어와 출발어가 개별적인 단순한 단어조성소에 의하여 의미적으로 련관되는것이 아니라 단어조성소와 정황 등과의 련합을 통하여 련관될수 있기때문이다.

련합적은유파생어의 의미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단어조성소들과 그와 의미적으로 련관된 공고한 련합이다. 실례로 **моргать**(눈을 깜빡거리다) → **проморгать**(놓치다, 넘겨버리다)에서 단어조성적의미는 사람이 눈을 깜빡거릴 때 순간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정황적의미와 접사의 의미의 련합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 의미는 단어조성류형의 의미와 같다.(비교 **проглядеть**, **прозевать**, **прокараулить**, **пропустить**)

로어에서는 련합적은유파생어류형의 파생어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 쓰인다. 그것은 단어들사이에서 은유현상이 일어날 때 단어의 형태부구조나 품사전환과 같은 변화에 의하여 출발어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가 차이나게 되기때문이다.

외적 및 내적은유파생어는 두 개념의 류사성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련합적은유파생어에 작용하는 제한조건은 매우 적다. 다시 말하여 련관어로 되는 모든 단어들이 단어조성은유실현의 기초로 될수 있다.

례: **ветер**(바람)→**поветрие**(류행), **штурм**(돌격)→**штурмовщина**(돌격식사업작풍), **бросить**(던지다)→**бросовый**

(아무데도 쓸데없는), **плевать**(침을 뱉다)→**плевать**(아무데도 쓸모없는), **швырять**(던지다)→**прошвырнуться**(지나가다)

표현적은유파생어는 련합적의미나 잠재적의미가 실현된 결과에 조성되나 련합적은유파생어와는 달리 출발어와 매우 희미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파생어들이다. 이 파생어들은 언제나 낮은 문체적색채를 띤다.

표현적은유파생어의 의미형성에서 주되는 역할을 하는것은 접사단어조성소이다. 실례로 **резать**(《속어》 빨리 행동하다)→**нарезаться**(《속어》 만취하다)에서 출발어와 파생어와의 의미적련관은 실질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접미사단어조성소에 **на...**에 의하여 단어조성의의미가 나타난다. (비교: **напиться**, **налимониться**, **надраться**, **нажраться**, **напороться**)

표현적은유파생어는 수적으로 많지 못하며 주로 동사만들기(**огреть**, **просадить**, **угрохать**, **втесаться**, **химичить**)과정에 생긴다.

로어의 은유파생어의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단어를 조성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파생어의 단어조성적잠재력은 품사소속관계, 파생단계, 출발어와의 의미적관계, 접사들의 의미적 및 형태음운론적결합성, 단어의 사용성정도, 문체적색채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존된다.

로어의 은유파생어들의 단어조성능력을 품사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유파생명사들의 대부분은 《성격상특성을 가지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단어조성공합렬을 이룬다. 이런 파생명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들이 만들어져 쓰인다.

례: 1) 파생명사:

ㄱ)남성명사에 대응되는 녀성명사:
нахлебник(식객)→**нахлебница**(녀

식객), сердцевед(통찰력있는 심리학자)→сердцеведка(통찰력있는 녀심리학자), сердцеед(남의 마음을 잘 호리는 남자)→сердцеедка(남의 마음을 잘 호리는 녀자)
 ㄴ)출발어간이 명명하는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 головоотяп(일을 되는데로 막 해치우는 사람)→головоотяпство(거친 일습씨) стихоплёт(시인)→стихоплетство(시짓기), рифмоплёт(영터리시인)→рифмоплётство(영터리시짓기)

2)《출발어간에 지적된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

лоботряс(건달군)→лоботрясничать(건달부리다), верхогляд(겉껍데기만 보는 사람)→верхоглядничать(피상적으로 보다), дармоед(건달군)→дармоедничать(무위도식하다)

3)관계형용사: лизоблюд(아침쟁이)→лизоблюдский(아침쟁이의), прихлебатель(건달군)→прихлебательский(건달군의)

은유파생명사들의 단어조성공합렬안에 있는 단어의 수량은 1~2개정도이다.

예: 하나의 파생어로 된 공합렬:

прожигатель(무위도식자)→прожигательница(녀무위도식자), нахлебник(식객)→нахлебница(녀식객), сердцеед(남의 마음을 잘 호리는 남자)→сердцеведка(통찰력있는 녀심리학자), сердцевина(심지)→сердцевинный(심의)

2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공합렬:

миroeд(부농)→миroeдский(부농의), мироедство(착취), сподвижник(공동위훈자)→сподвижница(녀공동위훈자), сподвижничество(공동위훈); захребетник(식객)→захребетница(녀식객), захребетнический

(식객의); зубоскал(익살군)→зубоскалка(녀익살군), зубоскальство(비웃기)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 단어조성공합렬안의 평균단어수는 1.5이고 단어조성단계도 한 단계뿐이며 단어조성연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통하여 은유파생명사들의 단어조성능력이 크지 않다는것을 알 수 있다.

хлебосол(손님을 환대하는 사람)→хлебосольный(손님을 환대하는)→хлебосольно(손님을 환대하며), головокружение(어지러움)→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ый(어지러운)→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о(현훈증이 나게)에서와 같이 두 단계의 단어조성연쇄를 이루는것도 있다..

부정적색채가 있는 일부 은유파생명사들은 단어조성능력이 없다. 실례로 проходимец(협잡군, 사기군), головорез(강도), молокосос(푼내기), книгоед(독경주의자), тугодум(생각이 느린 사람), делоручка(육체로동을 기피하는자)와 같은 단어들은 의미적색채를 띠면서 같은 동작을 표현하는 형용사파생어나 동사파생어를 조성하지 못한다.

또한 은유파생동사도 단어조성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은유파생동사의 단어조성공합렬구성은 출발어의 품사소속관계 다시말하여 은유파생동사가 어떤 품사의 단어를 출발어로 하였는가에 따라 그 단어조성능력이 달라진다.

예: 동사에서 만들어진 은유파생동사:

взвинтить(홍분시키다)→взвинченный(홍분된); возродить(부흥시키다)→возрожденный(부흥하는)→возрождение부흥; надругаться(모욕하다)→надругательство(호된 모욕)

명사에서 만들어진 은유파생동사: бычиться(우울해하다)→набычиться(상을 찌프리고 치며보다), ёжиться(몸을 웅그리다)→поёжиться[(얼마

동안 몸을) 옹크리다]

많은 경우 접두사들은 순수 태적의미를 나타내거나 태적의미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낸다.

례: советь(흔미해지다) → осоветь (흐리멍텅해지다), цыганить(방랑하다) → выцыганить [(돈을) 줄라서 받다], деревенеть(굳어지다) → одеревенеть(나무처럼 되다)

형용사에서 만들어진 은유파생동사: озадачить(당황케 하다) → озадаченный(당황한); искоренить (근절하다) → неискоренимый(근절할수 없는) скоренение(근절); окрылить(고무하다) → окрылённый(고무된); разбарить(소매하다) → разбазаривание(소매)

또한 은유파생형용사는 명사나 동사와는 달리 단어조성능력이 대단히 크다.

은유파생형용사에서는 주로 추상명사와 부사의 두 유형의 파생어들이 조성된다.

례: бессердечный(무정한) → бессердечность(무정), бессердечно(무정하게), бессердечие (무정); безмозглый(아둔한) → безмозглость(아둔); дальновидный(선견지명이 있는) → дальновидность(선견지명), дальновидно(선견지명으로); ершистый (완고한) → ершистость(완고한것), ершисто

(완고하게); разлапистый(사방으로 벌어진) → разлаписто(사방으로 벌여지게); щекотливый(жал끔한) → щеко-тливость (жал끔한것), щекотливо (жал끔하게); молниеностый(번개같은) → молниеносность(번개같은것), молниеносно(번개같이)

이 류형의 단어조성공합렬에는 드물게 접두사 не-가 붙은 형용사들도 포함된다.

례: полноценный(규격대로의) → полноценность(규격성), полноценно(규격대로), неполноценный(가치가 모자라는); броский(선명한) → неброский(수수한); коренной (토착의) → некоренной(토착주민이 아닌)

은유파생형용사의 단어조성공합렬은 들 또는 그 이상의 파생어들이 있을수 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에서는 단어조성은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례: продувной(교활한), пустоголовый(어리석은), слабоголовый(바보같은), тупоголовый(머리가 둔한), туполобый(머리가 둔한), смазливый(고운), тугоухий(가는 귀먹은), безголосый(성대진동이 없는)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외국어학습과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